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년 머지 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 1~12 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13~16 쪽
  - 언어와 매체 ..... 17~20 쪽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의 궁극적 목표는 텍스트의 정보를 독자의 배경지식과 결합해 포괄적인 의미망을 조직하는 ‘상황 모델’의 구축이다. 그러나 개별 정보 단위인 노드들이 링크로 비선형적으로 연결된 하이퍼텍스트 환경에서, 독자는 정보망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는 방향 상실을 겪으며 상황 모델 구축에 빈번히 실패한다. 방향 상실은 개별 노드에서 추출한 핵심 정보들을 글 전체의 주제에 맞게 위계화하는 거시적 응집성이 붕괴될 때 발생하며, 이는 결국 상황 모델 구축의 실패로 이어진다.

하이퍼텍스트 독서에서 거시적 응집성 구축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독자의 인지 자원인 ‘작업 기억’의 할당 방식에 있다. 거시적 응집성은 인접한 노드 간의 의미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미시적 응집성을 전제로 하며, 미시적 응집성의 형성에는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처리 자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 독서에서는 어떤 링크를 선택할지 평가하고 전체 경로를 탐색하는 ‘항해’ 과정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작업 기억 내의 통제 자원이 막대하게 소모된다. 독자의 작업 기억 총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 항해 과정에 통제 자원이 우선적으로 과다 할당되면 텍스트 이해의 토대가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 독서에서는 작업 기억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목표 지향적 항해 전략’은 링크를 클릭하기 전, 표제어나 주변 맥락 등 시각적 단서를 활용해 연결될 정보가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지 미리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를 읽은 후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후적 평가의 비효율성을 줄여 통제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 둘째, ‘구조적 지향 전략’은 사이트 맵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지나온 읽기 경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독자는 이를 통해 개별 노드에서 얻은 정보들을 전체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거시적 응집성을 유지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방향 상실은 개별 노드의 핵심 정보를 전체 주제에 맞게 위계화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 ② 하이퍼텍스트 독서에서 링크를 선택하고 경로를 탐색하는 항해 과정에는 작업 기억 내의 통제 자원이 소모된다.
- ③ 링크 내용을 읽은 뒤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은 통제 자원 소모를 가중시킨다.
- ④ 하이퍼텍스트 독서에서 방향 상실이 발생하면, 개별 노드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더라도 상황 모델 구축에 실패하게 된다.
- ⑤ 구조적 지향 전략은 지나온 경로를 점검해 인접 노드 간 의미 연결 파악에 직접 기여한다.

2.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해 과정에서 통제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텍스트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결합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여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 ② 한정된 작업 기억 내에서 처리 자원이 부족해져, 거시적 응집성의 전제가 되는 미시적 응집성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③ 항해에 소모되는 통제 자원이 텍스트 의미 구성을 위해 사용되어, 전체 경로의 탐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 ④ 목표 지향적 항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개별 노드의 정보를 위계화하는 데 필요한 작업 기억의 총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⑤ 비선형적 링크 구조가 처리 자원을 우선적으로 소모하여, 읽기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통제 자원의 여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생’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생은 조선 시대 신분제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백과사전 웹사이트를 탐색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가) 본문 중 ‘갑오개혁’이라는 링크 표제어와 해당 항목이 ‘근대 개혁’ 범주에 배치된 것을 확인하고, 과제 해결에 부합하는 정보라 판단하여 클릭했다.

(나) 이동한 문서에서 여러 링크를 클릭해 내용을 읽어본 후에야 과제와 무관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원래의 탐색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였다.

(다) 여러 문서를 훑어보다 보니, 방금 읽은 문서와 직전에 읽었던 문서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의미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라) 웹사이트 전체의 구조도와 현재 위치 표시줄을 함께 확인하며, 자신이 지나온 경로와 현재 위치를 점검하였다.

- ① (가)는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정보가 과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것으로, 사후적 평가로 인한 통제 자원 낭비를 줄이려는 목표 지향적 항해 전략이겠군.
- ② (나)는 연결될 정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통제 자원을 낭비한 결과로, 텍스트 의미 구성을 위한 작업 기억의 효율적 분배에 실패한 상황이겠군.
- ③ (다)는 인접한 문서 간의 의미적 연결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구성하는 처리 자원이 부족해져 미시적 응집성 형성에 실패한 상태이겠군.
- ④ (라)는 웹사이트의 전체 구조도와 현재 위치를 점검한 것으로, 읽기 경로를 결정하기 전 시각적 단서를 활용해 연결될 정보의 목적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구조적 지향 전략이겠군.
- ⑤ 학생이 (다)의 상태에 머문 채 (라)와 같이 전체 맥락을 점검하지 못한다면, 결국 텍스트 정보와 배경지식을 결합하는 상황 모델 구축에 실패하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2세기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우주를 보편적이고 선한 질서인 '이치(理)'와 이를 형상화하는 물질적 요소인 '기(氣)'로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따른다. 주희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또한 기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본체에는 하늘이 부여한 순하고 선한 이치인 '본연지성(本然之性)'이 내재해 있다. 하지만 현실 속 인간의 성품은 기의 맑고 탁한 정도가 개입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육체적 감각과 결부된 기질의 탁함은 사사로운 욕망인 '인욕(人欲)'을 발생시키며, 이것이 본연지성을 ㉠ 가려 악으로 흐를 위험성을 지닌다. 이에 주희는 탁한 기질을 바로잡아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는 ㉡ '존천리 멸인욕'을 수양의 핵심 원리로 삼았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예법과 형벌 제도가 가변적인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만물에 앞서 존재하는 절대적 이치의 현실적 구현물이라는 점을 정당화했다. 따라서 통치자는 이 절대적 기준을 근거로 백성의 불온한 욕망을 억누르고 교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으며, 이는 기존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작동했다.

반면 18세기 청나라의 대진은 이치를 기와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파악한 주희의 전제를 비판했다. 그는 천지 만물이 오직 기의 역동적인 '운화(運化)' 과정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치란 만물을 주재하는 선형적 기준이 아니라 기의 운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후적 조리(條理), 즉 결과적인 질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진에게 이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가변적인 상태를 의미했다. 이러한 기 일원론적 관점에서 그는 주희가 경계했던 감정과 욕망을 기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인 '혈기심지(血氣心知)'로 명명하고 삶의 본질적 동력으로 긍정하였다. 혈기심지를 떠난 이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은, 만물에 선행하는 보편적 이치를 구현했다고 여겨졌던 기존 예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진에게 진정한 이치란 자신의 욕망을 ㉢ 미루어 타인의 욕망을 헤아림으로써, 개별 욕망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충족되는 상태 그 자체였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선형적 잣대로 백성의 욕망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욕망이 온전히 소통되고 충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주희의 성리학적 이욕관은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나, 후기에 이르러 욕망을 억압하는 성리학적 질서가 변화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자 실학자들은 새로운 인간관과 통치 원리를 모색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선한 이치로 규정하던 기존 입장을 비판하며, 본성을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인 기호(嗜好)로 재정의했다. 그는 육체적 생존을 위한 '형구적 기호'와 도덕적 선을 지향하는 '영지적 기호'를 구분하고, 형구적 기호 자체는 선악이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이에 맹목적으로 끌리면 악이 된다고 보았다. 중요한 점은 도덕이 내면에 이미 완성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인 ㉣ '자주지권'을 발휘하여 형구적 기호를 절제하고 영지적 기호를 실천할 때 비로소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선한 마음의 단초인 '단서(端緒)'는 내재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덕행으로 '확충(擴充)'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체의 몫이다. 도덕이 내재적 본성의 발현이 아니라 주체적 결단의 결과라는 인식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 돌아간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규제하는 법적 강제력이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며, 통치자는 백성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도 법을 통해 행위의 사회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19세기 최한기는 우주 만물을 기의 작용으로 보는 기학을 정립하고, 인간의 몸과 마음 역시 '신기(神氣)'라는 기의 활동으로 파악했다. 인간을 신기의 활동체로 본 그에게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욕망은 신기가 외부 환경과 반응하며 나타나는 필연적 과정이었다. 그는 도덕적 지향을 별개의 기호로 분리하지 않고, 사욕의 추구가 오히려 문명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 낳았다. 다만 이기적 욕망이 곧바로 만물의 운화 법칙인 이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내 안의 신기가 지닌 욕망을 미루어 타인의 신기가 지닌 욕망을 헤아리고 조율하는 '추측(推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추측을 통해 개인의 욕망이 타인의 욕망과 충돌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천지 만물의 조화로운 운화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한기에게 이상적인 정치는 고정 불변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욕망과 신기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수정하는 것이었다. 특히 타국과의 통상 역시 신기가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의 확장이므로, 국가는 이를 막지 않고 법과 제도로 보장하여 사회적 조화를 ㉧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우주의 보편적 원리와 욕망의 관계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관점을 대조하고, (나)는 새로운 인간관을 바탕으로 도덕과 욕망의 관계를 규명한 두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우주적 질서가 개별적 욕망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나)는 다양한 사상이 융합되어 새로운 학문적 지향점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가)는 타국의 사상이 자국에 수용되며 변모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나)는 자국의 전통 사상이 외래 사상과 충돌하며 수정되는 과정을 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이상적인 통치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특정 개념의 어원적 의미 변화와 결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의 도덕적 타락 원인을 육체적 욕망에서 찾는 당대의 보편적 인식에 동조하며 그 대안을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5. (가)에 제시된 대진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치는 기의 운행 과정에서 만물에 앞서 부여된 보편적 질서이므로, 제도는 백성의 혈기심지를 이치에 부합하도록 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② 통치자가 이치를 내세워 백성의 본성을 다스리는 것은 기의 탁함에서 비롯된 욕망을 억압하여 개별 욕망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③ 이치가 기의 운행 과정 밖에서 만물을 주재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예법이 인간의 혈기심지를 억압하는 척도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④ 생존과 안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도덕적 지향을 별개의 기호로 분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이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욕망의 소통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변적 질서이므로, 제도는 선형적 규범을 강요하기보다 욕망의 조화로운 충족을 돕는 수단이어야 한다.

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혈기심지를 긍정하여 우주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수양 원리이고, ㉡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작용함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 ② ㉠은 개인의 욕망을 사회적 예법의 구현물로 보는 전제이며, ㉡은 형구적 기호가 선악을 초월한 내재적 이치임을 입증하는 개념이다.
- ③ ㉠은 본연지성을 가리는 인욕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하려는 원리이며, ㉡은 내재된 단서를 주체적 결단을 통해 덕행으로 확충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이다.
- ④ ㉠과 ㉡은 모두 도덕적 성취를 위해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진 절대적 실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논리적 바탕이 된다.
- ⑤ ㉠과 ㉡은 모두 감각적 욕망이 악으로 흐를 위험성을 경계하고 도덕적 선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에게 내재된 보편적 이치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7. (가)와 (나)의 학자들의 입장에서 다음 ㄱ~ㄴ에 대해 학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도덕적 가치는 내면의 독립된 지향이 아니라, 환경과 교섭하는 감각적 욕망의 확장 선상에 있다.
- ㄴ. 인간의 감각적 욕망은 그 자체로 악은 아니며, 타인의 욕망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될 때 이치에 부합한다.
- ㄷ. 사회의 제도는 만물에 앞서 존재하는 보편적 질서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외적 강제력이다.
- ㄹ. 도덕적 성취는 자연적 경향성에 맹목적으로 끌리지 않고, 주체적 결단을 통해 특정 기호를 실천에 옮긴 결과이다.

- ① 대진은 ㄴ과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② 주희는 ㄷ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정약용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④ 최한기는 ㄱ과 ㄷ에 동의하겠군.
- ⑤ 정약용은 ㄷ에 동의하고, 최한기는 ㄹ에 동의하겠군.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들이 늘어나자, 흉년 시 곡물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을 두고 관리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다.

**갑:** “상인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여 곡식을 독점하는 것은 하늘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마땅히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 탐욕을 억눌러야 합니다.”

**을:** “상인이 이익을 좇아 타지의 곡식을 들여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가 이들의 활동을 무조건 억압할 것이 아니라, 상인의 교역이 다른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유통을 장려하고 그 과정에서의 지나친 독점만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 ① 주희는 갑이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하늘의 질서에 어긋난다고 본 것을 두고, 기의 탁함에서 비롯된 인욕이 이치를 가려 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점이라 보겠군.
- ② 대진은 을이 상인의 교역을 억압하지 말자고 한 것을 두고, 혈기심지를 긍정하되 독점 규제로 개별 욕망이 충돌하지 않는 조화로운 상태를 지향하는 입장이라 보겠군.
- ③ 정약용은 갑이 곡식의 독점을 엄벌해야 한다고 본 것을 두고,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한 행위의 책임을 엄히 물어, 제도를 통해 도덕적 선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도록 이끄는 조치라고 평가하겠군.
- ④ 정약용은 을이 지나친 독점만을 규제하자고 한 것을 두고, 형구적 기호를 인정하되 명문화된 제도를 통해 개인이 선택한 행위의 사회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관점이라 보겠군.
- ⑤ 최한기는 을이 상인들의 활동이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본 것을 두고, 이익을 추구하는 신기의 활동이 추측의 과정을 거쳐 만물의 운화 법칙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하겠군.

9.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짙은 먹구름이 달을 가려 밤거리가 유난히 어둡다.
- ② ㉡: 회의가 길어져 소풍 일정을 다음 주 평일로 미루었다.
- ③ ㉢: 선풍기 날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힘차게 돌아간다.
- ④ ㉣: 이웃집 고양이가 어젯밤에 예쁜 새끼를 세 마리나 낳았다.
- ⑤ ㉤: 여러 부품들이 하나로 모여서 커다란 기계를 이루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저당권과 같이 담보를 위한 권리만 설정하는 전형 담보와 달리 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담보를 비전형 담보라 한다. 비전형 담보는 채권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한다. 이처럼 목적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괴리는 전형 담보와는 다른 복잡하고 특수한 권리관계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이러한 괴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 형태가 **양도담보**이다.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되, 채무를 갚으면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다. 이때 채무자는 여전히 목적물을 점유하며 사용하는 점유개정 방식이 주로 쓰인다. 판례는 이 복잡한 상황을 대내외적인 권리관계로 분리하여 해결한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대외적 소유자인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면, 그 제3자는 양도담보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대외적 처분 권한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온전한 소유자로 믿었고 그에 과실이 없다면 선의취득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적 형식은 채무자에게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한다.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파산하면 목적물이 채권자의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무자가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를 구조적으로 방어하는 비전형 담보가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이다.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다.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되는 파산절연성에 있다. 따라서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아 안전하다. 한편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없이 위탁자 자신이 수탁자가 되어 자신의 특정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선언하는 자기신탁도 존재한다. 이 역시 고유재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이 분리되어 독립성을 지니므로 일반 신탁과 동일한 파산절연성의 효과가 발생한다.

비전형 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 덕분에 채권자에게 강력한 담보력을 주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빌린 돈을 크게 상회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할 위험이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 법은 돈을 빌리는 행위인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양도담보나, 장래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순위를 보전해 두는 가등기담보에 적용된다. 단,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때,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채권자는 곧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목적물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2개월의 청산 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채권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도 그 취지의 통지가 도달하고 청산 기간이 경과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무자는 청산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이는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전형 담보는 전형 담보와 달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권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다.
- ② 비전형 담보는 채권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적 형식의 괴리로 인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발생시킨다.
- ③ 판례는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파악할 때, 대내적 관계와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금 반환을 위한 양도담보와 장래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 모두에 적용된다.
- ⑤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대외적 처분 권한이 없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11. **양도담보**와 **담보신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도담보와 담보신탁은 모두 채권을 담보한다는 경제적 실질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적 형식을 취한다.
- ② 양도담보와 달리 담보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
- ③ 양도담보와 달리 담보신탁에서는 채무가 불이행되면,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 ④ 양도담보는 대외적 처분 권한이 채권자에게 있는 반면, 담보신탁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채권자가 직접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다.
- ⑤ 자기신탁은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구별되지만, 재산의 분리를 통한 파산절연성의 효과는 동일하게 발생한다.

1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요건이다.
- ② 목적물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③ 금전소비대차 이외의 채무를 원인으로 한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이다.
- ④ 담보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했다라도,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 ⑤ 경제적 실질보다 법적 형식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가액이 높은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확정적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영업자 갑은 사업 자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을은행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 갑은 자신이 소유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기계 A와 8천만 원 상당의 상가 B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기계 A는 소유권을 을은행에 이전하되 갑이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상가 B는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갑 자신을 수탁자로 삼고 을은행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재산으로 선언하였다. (단, 각 자산의 가치는 계약 이후 변동하지 않았으며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갑이 점유 중인 기계 A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했을 때 제3자가 갑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군.
- ② 을은행이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 A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대내적 소유자인 갑의 동의가 없다면 제3자는 기계 A가 양도담보 목적물임을 몰랐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군.
- ③ 갑의 사업 실패로 파산이 선고될 경우, 을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계 A는 갑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지만, 갑이 스스로 수탁자가 된 상가 B는 갑의 파산재단에 편입되겠군.
- ④ 갑의 채무 불이행 시 을은행이 상가 B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평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군.
- ⑤ 갑이 채무를 갚지 못해 을은행이 기계 A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청산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을은행은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머신러닝의 군집화는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어 집단을 분류하는 비지도 학습 기법이다. 군집을 형성하는 원리와 노이즈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K-평균 군집화와 DBSCAN이 있다.

K-평균 군집화는 데이터를 사전에 설정된 K개의 군집으로 묶는다. K개의 임의의 중심점을 설정한 후,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속한 군집에 ㉠ 할당한다. 이후 각 군집에 포함된 데이터들의 평균 위치로 중심점을 ㉡ 갱신하고, 다시 데이터를 묶는 과정을 중심점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이 방식은 연산이 단순하지만, 군집의 형태가 구형이 아닐 경우 분류 성능이 저하된다. 무엇보다 모든 데이터를 특정 군집에 강제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군집에서 멀리 떨어진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인 노이즈마저 평균 계산에 들어가 중심점의 위치를 왜곡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DBSCAN은 데이터가 모여 있는 밀도를 기반으로 군집을 형성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 DBSCAN은 군집의 개수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두 가지 파라미터인 '엡실론'과 '최소 이웃 수'만을 사용하여 작동한다. 엡실론은 특정 데이터로부터의 반경을 의미하며, 최소 이웃 수는 해당 반경 내에 존재해야 하는 데이터의 최소 개수이다. 반경 내의 데이터 개수에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DBSCAN은 설정된 두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핵심점, 경계점, 노이즈 중 하나로 분류한다. 특정 데이터의 엡실론 반경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가 최소 이웃 수 이상일 경우, 그 데이터는 군집을 자발적으로 확장하는 기준인 핵심점이 된다. 반면, 자신의 엡실론 반경 내 데이터 수가 최소 이웃 수에 ㉢ 미달하지만, 다른 핵심점의 엡실론 반경 안에 포함된 데이터는 경계점이 된다. 자신의 반경 내에 최소 이웃 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어떠한 핵심점의 반경 내에도 속하지 않는 데이터는 노이즈로 취급된다.

데이터의 상태 분류에 따라 군집화가 진행된다. 서로의 엡실론 반경 내에 존재하는 핵심점들은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군집으로 ㉣ 병합된다. 경계점은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핵심점의 군집에 편입되지만, 경계점 자체가 자신의 반경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군집으로 끌어들이 수는 없다. 만약 특정 경계점이 서로 묶이지 않은 복수의 핵심점 반경에 동시에 속할 경우, 해당 경계점은 알고리즘 연산 순서에 따라 먼저 처리된 핵심점의 군집에만 편입된다. DBSCAN은 이처럼 밀도가 높은 핵심점들을 연결해 군집을 확장하고 노이즈를 배제하므로 데이터의 형태와 무관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그러나 DBSCAN 역시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군집화의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엡실론을 고정한 채 최소 이웃 수의 기준을 높이면, 군집 형성 조건이 까다로워져 군집의 크기가 ㉤ 축소되거나 기존 군집이 여러 개로 분할된다. 또한, 데이터 집단 내의 지역적 밀도 편차가 클 경우, 고정된 단일 파라미터만으로는 전체 데이터를 적절히 군집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K-평균 군집화는 사전에 설정된 K개의 군집을 바탕으로, 각 데이터와 중심점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을 할당한다.
- ② DBSCAN에서 특정 데이터가 핵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엡실론 반경 내에 최소 이웃 수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 ③ K-평균 군집화는 노이즈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평균 계산에 포함하므로 중심점 갱신 과정에서 위치의 왜곡이 발생한다.
- ④ DBSCAN은 군집의 개수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아도 파라미터 조건에 따라 구형이 아닌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집단을 군집화할 수 있다.
- ⑤ K-평균 군집화와 달리 DBSCAN은 노이즈로 분류된 데이터를 인접한 경계점의 군집에 강제로 편입시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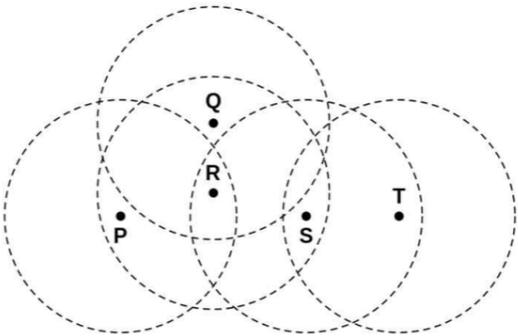
15.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 인접한 두 데이터라도 K-평균 군집화에서는 각기 다른 군집에 할당될 수 있지만, DBSCAN에서는 이들이 서로 다른 군집에 편입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K-평균 군집화는 특정 군집에 할당된 유효한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노이즈로 인한 중심점 위치의 왜곡은 더 커진다.
- ③ DBSCAN에서 지역적 밀도 편차가 큰 데이터를 군집화하고자 파라미터 기준을 완화할 경우, 고밀도 지역의 독립적인 군집들이 하나로 병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될 때, K-평균 군집화는 중심점의 위치를 고정하여 군집을 갱신하지만, DBSCAN은 핵심점의 분류 기준을 갱신하여 군집의 형태를 조정한다.
- ⑤ DBSCAN은 반경 내 데이터 개수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므로, 최소 이웃 수를 1로 설정할 경우 전체 데이터는 군집을 확장할 수 없는 경계점이 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다음은 2차원 평면상에 있는 5개의 데이터 P, Q, R, S, T의 위치와, 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정된 앵실론 반경을 점선 원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단, 점선 위에 걸친 데이터는 없다.)



- ① 최소 이웃 수가 2일 때, P와 T는 서로 반경이 겹치지 않으므로 전체 데이터는 두 개의 군집으로 분할되겠군.
- ② 최소 이웃 수가 3일 때, Q는 반경 내 데이터 수가 기준에 미달하므로 자발적으로 군집을 형성하지 못하는 노이즈가 되겠군.
- ③ 최소 이웃 수가 4일 때, T는 군집에 편입된 S의 반경 내에 존재하므로 S가 속한 R의 군집에 편입되겠군.
- ④ 최소 이웃 수가 3이고 연산이 P보다 Q가 먼저 처리되었다면, R은 Q가 확장한 군집에 편입되겠군.
- ⑤ 최소 이웃 수가 4일 때, 경계점인 S는 알고리즘 연산 순서와 무관하게 편입될 군집이 확정되겠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분배(分配)한다
- ② ㉡: 대체(代替)하고
- ③ ㉢: 결여(缺如)되지만
- ④ ㉣: 통합(統合)된다
- ⑤ ㉤: 위축(萎縮)되거나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룡은 양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양모 변씨의 모진 구박을 받는다. 해룡은 늘 곁을 지키는 신이한 금방울의 도움으로 변씨가 위기를 모면하지만, 결국 변씨가 해룡이 잠든 방에 불을 지르자 하늘을 탄식하며 집을 떠나 방황한다.

이해룡이 훌훌이 집을 떠나가는데 앞에 큰 피가 막혔으며, 어디로 향할 줄을 몰라 주저할 즈음에 금령이 굴러 갈 길을 인도 하더라. 점점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갈 때에 층암절벽 사이에 푸른 잔디와 암석이 내를 격하여 바라보이매, 해룡이 바위 위에 앉아 잠깐 쉬더라. 이때 문득 벽력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한 곳에 금털 돋친 짐승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자기를 해하려고 하므로, 해룡이 급히 피하고자 하더니 금령이 굴러 내달아 막으니, 그 짐승이 몸을 흔들며 변하여 아홉 머리를 가진 악귀가 되어 금령을 집어삼키고 들어가는 것이었으니, 해룡이 이 거동을 보고 대경하여 낙담하며 말하기를,

“이번에는 반드시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홀연히 광풍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크게 부르짖기를,

㉠ “금령을 구하지 않고 이리 방황하느뇨? 급히 구하라.”

하고, 문득 간데 없으며,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니 부득이 구하려니와, 빈손뿐이요 몸에는 촛철 하나 없으니 어이 대적하리오.’ 하고, 또 생각하되, ‘금령이 없으면 내 어찌하여 살아났으리오.’ 하고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한 번 뛰어 들어가니, 지척을 분별치 못할 지경이더라. 수삼 리를 안으로 들어가니 그래도 아무 종적이 없더라. 그리하여 힘을 다하여 기어이 들어가니 홀연히 천지가 밝아지고 해와 달이 고요한데 두루 살펴보니 청석 돌비에 금자로 새겼으며 ‘남천산 봉래동’이라 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 위에 만장 폭포가 흐르는 소리 세사를 잃어버릴 만 하였고, 그곳을 지나 점점 들어가니 아문을 크게 열고 동중에 붉은 궁궐이 하늘과 땅에 닿아 내성과 외곽이 은은히 보이거늘,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썼으며 ‘금선수부’라 하니라. 해룡이 문밖에서 주저하여 감히 들어가지 못하더니, 이윽고 안으로부터 여러 계집들이 나오는데 색태가 아름답고 시골에 묻힌 계집과 판이하거늘 해룡이 몸을 풀포기에 숨기고 동정을 살피니, 사오 명의 계집이 피 묻은 옷을 광주리에 담아 이고 나와 시냇가에 이르러 옷을 물에 빨며 근심이 가득하여 서로 말하기를,

㉡ “우리 대왕이 전일에는 용력이 절인하고 신통이 거룩하여 당해낼 자 없더니, 오늘은 나가시더니 홀연 속을 앓고 돌아와 피를 무수히 토하고 기절하니, 그런 신통으로도 이런 병을 얻었으니 곧 나오면 좋으려니와 만일 오래 신고하여 낫지 못하면 우리들의 괴로움을 어디에다 비하리오.”

하니, 그중에 한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공주 낭량이 간밤에 한 꿈을 얻으니, 한 선관이 내려와 이르시되 ‘내일 다섯 시에 일위 수재가 와서 악귀를 잡아 없이 하고 공주 낭량을 구하여 돌아갈 터이니 염려 말라. 이 사람은 동해 용왕의 아들로서 그대와 속세 연분이 있음에 그대가 이렇게 됨이 또한 천수와 인력으로 못하니 ㉢ 천명을 부디 어기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 당부하시더라. 그러더니 오늘 다섯 시가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꿈도 허사가 아닌가 하노라.”

하고, 서로 슬피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㉔ “우리도 언제나 이곳을 벗어나 고국에 돌아가 부모님을 뵈옵고, 우리도 팔자가 기박하여 이처럼 공주 낭랑과 같이 하니 이도 또한 팔자에 매인 천수인가.”

하거늘, 해룡이 이를 듣고 부지불식간에 내다르니 그 계집들이 놀라 달아나려 하니 해룡이 인유하며,

㉕ “그대들은 놀라지 마라. 내 악귀를 없애고자 들어왔으니 의심을 두지 말고 악귀 있는 곳을 자세히 가리키라.”

하니, 계집들은 공주의 몽사를 생각하며 신기하기 그지없는 지라. 해룡을 인도하여 들어가니 중문은 첩첩하고 전각은 반공에 솟았는데, 가만히 들어가니 한 곳에 흉악하게 신음하는 소리에 전각이 움적일 듯하니라. 뛰어 올라가 보니 ㉖ 그 짐승이 전각에 누워 앓다가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배를 움키고 온몸을 뒤틀며 피를 무수히 토하더라. 해룡이 이 형상을 보고 하수코자 하나 빈손으로 촌철이 없어 방황하는데, 그때 한 미인이 칠보 홍군으로 몸도 가볍게 걸어오며 벽상에 걸린 보검을 가져다가 급히 주거늘, 해룡이 즉시 받아 요괴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니 그제야 죽어 늘어지는지라. 자세히 보니 금터럭 돋친 암돼지이여늘, 가슴을 헤치고 본즉 문득 금령이 굴러 나오니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를 질러 묻되,

“너희 수십 명이 필경 다 요괴로 변하여 사람을 속임이 아니냐?”

하니, 모든 여자가 일시에 꿇어앉아

“우리들은 요괴가 아니요. 팔자가 기구하여 그릇 이놈에게 잡히어 와 사환이 되어 억류되어 있는 급한 목숨들이로소이다. 아까 보검을 드리던 분이 곧 천자의 외따님 금선공주 낭랑이로소이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미인이 나와 수색을 떠머 사례하여 말하기를,

“나는 공주였더니, 모후를 모시고 후원에 올라 달구경 하다가 요괴에게 잡히어 왔으나, 시비들이 주야로 수직하여 있는 고로 옥을 참고 부지하여 살아 있다가 마침 천행으로 그대의 구하여 주심을 입어 다시 고궁에 돌아가 부왕과 모후를 뵈옵게 하오니 이 은혜는 각골난망이로소이다.”

해룡이 자초지종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기를,

“이제 공주를 모시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바쁘으나 길이 험하여 발설하기 어려울 것이니, 내 잠깐 나아가 복현에 고하고 위의를 갖춰 공주를 모시게 하올 것이니 잠깐만 기다리시옵소서.” 공주가 울며 말하기를,

“그대 간 후에 또 무슨 변괴가 있을는지 알 수 없사오니 제발 데려가 주소서.”

해룡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금방울이 천지조화로 되었음에 재주가 무궁하고 신통이 기이 하기로, 정히 요괴를 잡고 고국에 돌아가게 하였음이 다 금령의 조화로 됨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가히 구하리니 염려 마시고 잠깐 기다리소서.”

하고, 즉시 문밖에 내달아 바로 남경을 향하여 들어갈 때 십자로에서 여러 사람들이 방 불인 것을 보고 있더라.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과거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서사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교차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이 지닌 긴박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과거의 원한을 환기하여 인물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⑤ 비현실적인 공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겪게 될 시련의 비극적 분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19. ㉖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괴가 ㉖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해룡이 요괴의 소굴로 진입하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과 맞닿아 있다.
- ② 시녀들은 ㉖을 목격하기 이전에 요괴가 처한 기이한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그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 ③ 해룡은 ㉖을 확인한 직후, 자신이 이계의 공간에 진입할 때 인식했던 한계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 ④ 금선공주는 ㉖에 처한 요괴를 처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해룡에게 제공하여 상황의 반전을 이끌어낸다.
- ⑤ 해룡은 ㉖의 원흉인 요괴의 가슴에서 금령을 발견하고, 금령의 초월적 능력을 빌려 혼자 요괴가 있던 공간을 벗어난다.

20. ㉗~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㉗에서는 상대에게 부여된 책무를 상기시켜 행동을 촉구하고, ㉙에서는 상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황의 낙관을 약속하고 있다.
- ② ㉗와 ㉘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변화를 근거로,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상대에게 알리고 있다.
- ③ ㉘와 ㉙에서는 억압적 상황이 지속됨을 한탄하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주체적 행동을 다짐하고 있다.
- ④ ㉘에서는 운명적 질서를 내세워 특정 행위를 요구하고, ㉙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밝히며 상대의 조력을 요청하고 있다.
- ⑤ ㉘에서는 상대의 처지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㉙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금방울전」은 영웅 서사의 궤적을 따르면서도, 주동 인물과 초월적 조력자의 필연적 연대 관계를 중심으로 이계에서의 대결 의식을 보여준다.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 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지위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한다. 특히 억압받던 인물들이 외부의 구원 가능성과 운명적 질서를 인식하는 양상이나,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 획득되고 동원되는 방식은 주동 인물의 단독적 영웅성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며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① 짐승이 악귀로 변하여 금령을 삼키고 해룡이 이를 추적하는 데서, 초월적 조력자와의 연대를 중시하여 무력을 갖춘 적대자와의 대결을 피하지 않는 주동 인물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② 시녀들이 공주의 몽사를 언급하며 소식이 없음을 탄식하는 데서, 외부의 구원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운명적 질서의 실현 여부에 동요하는 억압받던 인물의 양상을 알 수 있군.
- ③ 요괴가 배를 움켜쥐고 온몸을 뒤틀며 피를 토하는 데서, 주동 인물이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초월적 조력자와의 연대가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한 미인이 해룡에게 보검을 가져다주어 요괴를 찌르게 하는 데서, 억압받던 인물이 수단을 제공하여 압도적 무력에 맞서야 하는 초월적 조력자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공주가 해룡이 홀로 떠나는 것을 만류하며 동행을 애걸하는 데서, 적대자 퇴치 이후 예상되는 위협에 대해 억압받던 인물이 주동 인물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도모하려는 대응 방식을 알 수 있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다)

천하에 두려워할 만한 것은 오직 백성일 뿐이다. 백성의 두려워할 만한 것은 수재(水災)나 화재(火災)나 호환(虎患)이나 표환(豹患)보다 심하다. ㉠ 그러나 윗사람이 늘 함부로 대하고 길들이려 하며 잔학하게 그들을 부리려 하는 것은 유독 왜인가? 대저 함께 이루는 것만을 즐겨 항상 보는 것에 구애되며, 순수하게 법을 받들고 윗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늘 그러한 백성이니, 향민은 두려워할 게 없다. 사납게 빼앗겨 살갓과 뼈와 골수가 찢기고 집의 수입과 땅의 지출을 다 바치며 무궁한 요구에 맞춰 공급함으로 근심하고 탄식하며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을 원망하는 백성이니, 원민도 반드시 두려워할 필은 없다. 자취를 ㉢ 푸주간에 감추고 몰래 탄 마음을 품어 궁벽한 천지 사이에서 흘려보다가 요행한 때에 번고가 생기면 자신들이 원하던 걸 실현 하려는 사람을 호협한 백성, 즉 호민이라 한다. ㉣ 호민이라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만하다. 호민은 나라의 틈을 엿보고 일의 기미가 탈 만한지를 엿보다가 팔을 휘두르며 언덕이나 밭 위에서 한 차례 부르짖으면, 원민들이 소리를 듣고 모이니 도모하지 않았는데도 동시에 소리친다. 저 향민은 또한 살 길을 강구하여 부득불 호미와 곱방메, 창 따위를 들고 따라 가서 무도한 이들을 죽인다. 진나라가 망한 것은 진승과 오광 때문이고, 한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또한 황건적으로 인해서였다. 당나라의 쇠함은 왕선지와 황소가 편승하여 마침내 그것 때문에 사람과 나라를 망하게 하고서야 그만뒀다. ㉤ 이것은 모두 백성을 괴롭혀 스스로 기른 허물로 호민이 틈에 편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늘이 목민 관을 세운 것은 백성을 기르도록 해서이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윗자리에서 방자하게 흘려보며 계곡이나 골짜기 같은 메워지지 않을 욕심을 채우려 해서가 아니다. 그러니 저 진나라와 한나라 이래의 재앙은 마땅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땅이 좁고 사람이 적으며 백성은 또한 나약하고

악착같고 기이한 절개와 호협한 기상이 없다. 그러므로 평상시엔 재주 있는 사람과 준수한 사람이 나와도 세상에 쓰여지지 못했고, 난리가 닥쳐도 또한 호민이나 사나운 졸병이 앞서서 멋대로 난리를 퍼 나라의 근심인 사람들이 없었으니, 또한 다행한 일이다. 비록 그러나 지금의 조선은 고려 때와는 다르다. 고려때엔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함에 상한선이 있었고 산과 연못에서 나오는 이익을 백성과 공유했다. 그리고 상업은 통하게 했고 장인들에게 혜택을 줬으며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도록 했다.

(중략)

조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구구한 백성의 세금으로 귀신을 섬기고 윗사람을 만드는 절개는 중국과 동등하다. 백성이 낸 세금은 오픈인데 세금이 나라에 귀속된 것은 겨우 한 뿐이니, 그 나머지는 간사하고 사사로운 관리들에게 낭자하게 흩어졌다. 또한 관청엔 여분의 저축해둔 게 없어 일이 있을 때마다 1년에 간혹 두 번이나 세금을 내게 하니, 수령과 재상들은 이것을 빙자하여 가혹하게 징수함에 또한 끝이 없었다. ㉠ 그러므로 백성의 근심과 원망이 고려 말기보다 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윗사람이 편안해하며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우리나라엔 호민이 없기 때문이다. 불행히 견훤과 궁예 같은 사람이 나와 흰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근심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어찌 가서 쫓지 않을 거라 보장하며, 기주(蔚州)와 양주(梁州)와 육합의 반란은 발을 구부리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으리라. ㉡ 그러니 목민관은 두려워할 만한 형세를 분명히 알아 지금까지의 규범을 바꾼다면 오히려 그만두게 함에 미칠 만하다.

- 허균, 「호민론」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상의 외양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나)는 음성 상징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상황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대상의 소멸 과정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호명하여, (나)는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가 속한 집단의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나)는 화자의 시선 이동과 행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역동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체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2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의 형식을 빌려 지배층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며, 백성들의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 ② ㉡: 대상의 특징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바탕으로, 지배층이 경계해야 할 부류가 지닌 잠재적 폭발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백성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지배층의 허물이 호민의 편승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④ ㉡: 조세 제도가 안정적이었던 과거의 사례와 현재를 대조하여, 조선의 백성들이 처한 가혹한 수탈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예측되는 반란의 가능성을 근거로 삼아, 다가올 위기를 막기 위해 통치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경고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70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훼손과 획일적 이데올로기의 강제라는 문제를 겪었다. (가)와 (나)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놓인 군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는 소외된 삶의 터전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역설적인 감정 표출을 통해 드러낸다. (나)는 강요된 일상 속에서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관념적 일탈을 꿈꾸며, 현실의 규범을 조롱하는 자조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끝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감을 보여준다.

- ① (가)에서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한탄하며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라고 하는 것은, 훼손된 농촌 현실에서 소외된 계층의 상실감을 보여주는군.
- ② (가)에서 죽음의 공간인 '도수장 앞'을 돌 때 '신명'이 난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오는 절망감이 역설적인 감정으로 표출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강제된 획일적 일상을, '낄낄 대면서'는 폭력적인 이데올로기 규범에 대한 화자의 자조적 조롱을 드러내는군.
- ④ (나)에서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다가 '주저앉는다'로 끝맺는 것은, 화자가 동일시하던 대상의 한계를 깨닫고 관념적 일탈을 포기하는 무력감을 나타내는군.
- ⑤ (가)에서 '텃빈 운동장'에서 분노하는 모습과 (나)에서 '대열을 이루며'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은 모두,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하여 갈등하는 군상의 양상을 보여주는군.

25.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인물들이 고달픈 삶을 '원통하다'고 탄식하는 것은, 윗사람의 무궁한 요구에 빠져 골수가 찢기며 근심하는 원민의 처지와 맞닿아 있겠군.
- ② (가)에서 '끼정어'처럼 울부짖다가도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며 체념하는 모습은, 불합리한 현실을 뒤엎기 위해 팔을 휘두를 호민으로 각성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는군.
- ③ (나)에서 '애국가'를 일제히 일어나 경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법을 받들고 윗사람의 부림을 당하는 향민의 속성에 부합하겠군.
- ④ (나)에서 화자가 새뎌를 보며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자취를 감춘 채 요행한 때의 번고를 엿보아 뜻을 실현하려는 호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의 인물들이 '신명'을 내고 (나)의 화자가 '낄낄대'는 것은 모두, 무도한 체제를 처단하는 실천적 행동에 이르지 못한 원민이나 향민의 대응 방식으로 볼 수 있겠군.

2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구경꾼이 떠난 직후에 남겨진 화자와 공동체의 허탈감을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기하고 있다.
- ② ㉡는 주체가 현실의 부조리를 자각하고 억압적 규범에 맞서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립을 택하는 공간이다.
- ③ ㉢는 주체가 속한 획일화된 세계의 제약을 벗어나,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공간이다.
- ④ ㉣는 주체가 상상 속의 일탈을 현실에서 구체화하여, 자신을 구속하던 내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공간이다.
- ⑤ ㉤는 주체가 세상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체념적 무력감을 확인하고, 현실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는 공간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할아버지의 자는 공우, 호를 능하라 했으며, 병오생으로 상주 목사의 아들이요, 강릉 부사의 손자로 태어났다. 그러나 과거는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다. 그 즈음엔 이미 선조들이 모두 벼슬 살이를 반납하고 낙향해 버린 뒤였고, 공부를 중단해야 할 만큼 의기와 가산이 침체돼 그럭저럭 실기해 버리고 만 것이라 했다. ㉠ 애초에 벼슬자리에 못 오른 건 시국 탓으로 돌렸고, 자신의 불운함을 한탄했으며, 그러한 한이랄까 전조의 향수랄까, 하여간 그런 감상이 지나쳐, 종종에서 한창 명성을 떨쳤던 월남 이상재의 개명마저 늘 못마땅하게 여길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런 고색창연했던 가훈들은, 내가 태어나기 그 훨씬 전부터 아버지가 이미 앞장서서 깨뜨리고 어겨, 전혀 반대 방향의 풍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이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대대로 공경 대부를 배출한 사대 부가의 후예임을 조금도 대견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농공상의 서열을 망국적 퇴폐 풍조로 지적했고 '무산 계급의 옹호와 인민 대중의 사회적인 위치를 쟁취한다.'는 구호와 함께 그것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서 주도하기 시작한 거였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들과 당신 사이에 금이 벌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두꺼운 장벽으로 굳어 가는 것을 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 스스로 이방인임을 자인하며 인간사에서의 은퇴와 함께 변천하는 시대와 세월을 방관하기로 작정한 까닭이었으리라. ㉢ 어린 내가 보고 느끼기에도 그 얼마나 모순된 사랑방 풍경이었던가. 사랑은 커다란 장지틀을 가운데로 하여 널찍한 방이 둘이었다. 안방은 그 옛 단지를 비롯한 온갖 군입 거리들이 들어찬 벽장을 뒤로하고 정좌한 할아버지의 은둔처였다. 그 방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검버섯 속에 고색이 쩌들어 가는 시대의 고아 이조옹들이 집산장으로서 난세 성토장 겸 소일터였으며, 윗방은 아버지의 응접실이었다. 안방은 이 군수 아우, 윤 참의 아들, 조 진사, 홍 참봉 등등으로 불리던, 지팡이 없이는 나들이도 못 할 초라한 행색의 상투쟁이들이 늘 단골로 뵈었다. 아버지가 쓰는 윗방 손님들은 안방의 고로들 행색보다 훨씬 더 누추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이 할아버지로서는 이름도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농사꾼들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할아버지보다도 더 완고한 구석이 없지 않았던가 싶다. 자식들에 대한 훈육만은 서슬이 퍼렇게 냉엄했다. 나는 굵은 철창 안에 태연하게 앉아서 담소하던 아버지가 두렵기만 했던 것이다. 특하면 불러가고 연행돼 가던 신분이었음에도 언제나 의기 왕성하며 투지 만만하던 그 얼굴이 두려운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사상을 관찰하고자 하던 그 굳건한 정신이 외경스러웠던 것이다. 한 달 동안 내가 배달한 식사로 건강을 유지했던 아버지가 출감하던 날, 아버지는 예상 밖으로 강건한 젊은 표정을 보이며, 아직도 뜨거운 찬합 보따리가 들려진 내 손목을 짐짓 잡아 주며 한 컷마디 말이,

㉣ "그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었니?"

였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애썼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아버지한테서 차갑고 무정한 거리감, 아니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나는 그 때를 지적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 그것은 일상 아버지가 자식들을 훈육함에 있어 언제나 준엄하고도 분명했던 한 단면이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다시 한 번 그런 경황을 맞아 당황했던 나로서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 의식을 보다 더 선명하게 가슴 깊이 새기는 결정적인 충격이 되었다. ㉥ 그것은 밖으로는 항상 뒷전으로만 돌리, 기껏 남의 뒤치다꺼리밖에 차례 못 받는 무능한 처신술이 싹트고, 안으로는 모든 가사에 있어 식객 정도의 존재로, 가족적인 위치를 못 얻은 무력한 사내로 낙후하게 된, 지나온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돼 버리고 만 것이기도 하다. 내가 두 번째로 당한 일은 앞서 말한 것 이외에도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내가 일생을 통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로부터 직접 배운, 최초의, 그리고 최후가 된 공부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하얀 분판을 뉘어 놓고 같은 획을 여남은 번씩이나 되풀이하여 거듭 그어 보도록 재촉하였다. 나는 이마에 맺히는 진땀을 훔쳐낼 겨를도 없이, 떨리는 손을 가누지 못한 채 열심히 반복하고 있었다. 드디어 벼락을 내리친 것이다.

㉦ "원, 아이 손마디가 이렇게 무더서야…… 천상 연장 들고 생일이나 헐 손이구나……"

아, 그 아팠던 순간을 어찌 잊으랴. ㉧ 아버지는 단 한마디, 할아버지 귀에도 안 들렸을 만큼의 한탄 아닌 꾸밈을 했건만 나에게서는 뇌성 벽력이나 다름없는 거였다. 내가 내 정신을 되 찾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다. 밖에서 손님이 찾는 소리가 났던 것도 나는 못 알아들었던 것이다. 나는 것처럼 무색하고 무안할 수가 없었지만, 우선은 호구를 벗어난 듯한 안도감에 부랴부랴 안방으로 달아나 버렸었다. 나는 남다른 재주를 못 타고난 자신이 죽고 싶도록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다. 치욕이요 망신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내게 글씨를 가르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모르게 헌 신문지를 어두컴컴한 골방 구석에 쌓아 놓고 앉아 몇 날 며칠을 거듭거듭 연습했었다. 수치와 모멸을 만회해야만 살겠던 것이다.

- 이문구, 「관촌수필」 -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내면적 동기를 외부 관찰자의 시선에서 추측하여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
- ② 인물 간의 가치관을 대조하여, 전통적 질서를 계승하려는 의지를 부각한다.
- ③ 특정 인물들과 관련된 과거의 일화를 제시하여, 그들이 서술자에게 미친 내면적 영향을 드러낸다.
- ④ 과거와 현재의 공간을 빈번하게 교차하여, 서술자의 현재 결핍이 심리적으로 보상받는 과정을 나타낸다.
- ⑤ 인물 간의 빈번한 대화를 통해 사건 전개 속도를 높이고, 심화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표면화한다.

2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할아버지는 아들의 이념적 일탈을 막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 한다.
- ② ㉡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부정했던 사대부가의 전통을 자식이 계승하기를 바라며 이를 강요하고 있다.
- ③ ㉢에서 아버지는 옥중 고초를 은연중에 드러내어 자식의 동정을 유발하고 약화된 가장의 권위를 회복하려 한다.
- ④ ㉣에서 아버지는 자식의 무능함을 탓하며, 사농공상 서열을 중시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내비치고 있다.
- ⑤ ㉣에서 아버지가 자리를 뜬 것은, 자신의 훈육 방식에 반발하는 자식의 태도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2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할아버지'의 벼슬 포기에는 선조들의 낙향으로 인한 가산 침체와 시대 상황에 대한 체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② '아버지'는 공경 대부를 배출한 가문의 후예임에도, 사농공상 서열을 비판하며 인민 대중의 권익 옹호에 앞장섰다.
- ③ 안방과 윗방을 찾는 손님들의 대비되는 행색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상이한 지향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 ④ '나'가 출감한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느낀 것은, 공권력 앞에서도 사상을 관철하려는 굳건한 정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 ⑤ '나'가 현 신문지에 붓글씨를 거듭 연습한 것은, 치욕감을 극복 하여 가문의 사대부적 전통을 주도적으로 잇기 위함이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윗글의 서술자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특정 상황에 처해 있던 미성숙한 '경험 자아'의 주관적 심리를 현장감 있게 복원하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 과거를 반추하는 성숙한 '서술 자아'의 사후적 시선에서 과거 상황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거나 호흡이 긴 문장을 활용하여 인물의 복잡한 의식이나 정서를 촘촘하게 엮어내어 글의 깊이를 더한다.

- ① ㉠: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여,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어 있던 조부의 복잡한 회한과 향수를 사후적 시선에서 헤아린 것이겠군.
- ② ㉡: 집안의 이질적 풍경을 영탄적 어조로 회상한 것은, 낯선 상황을 체감하던 경험 자아의 시선에 서술 자아의 분석적 평가가 겹쳐 드러난 것이겠군.
- ③ ㉢: 예기치 않은 반응이 부른 내면의 충격을 긴 호흡으로 서술한 것은, 당시의 당혹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단절감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촘촘히 드러낸 것이겠군.
- ④ ㉣: 억압적 경험을 현재의 위축된 삶의 기원으로 밝힌 것은,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여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서술 자아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 타인의 사소한 발언을 치명적 충격으로 묘사한 것은, 거리를 두려는 서술 자아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당시 공포감에 짓눌려 있던 주관적 심리를 생생하게 복원한 것이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하늘이 생기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한 인생이 이대도록 고초한고  
 삼순 구식(三旬九食)\*을 얻거나 못 얻거나  
 십년 일관(十年一冠)을 쓰거나 못 쓰거나  
 안연(顔淵)의 구력인들 날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날같이 심할까  
 봄날이 더디고 더더 빠꾸기 재촉하거늘  
 동쪽 이웃에 따보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남았거늘  
 춤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바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하라  
 죽은 물 상청(上淸)\*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 파람 분다  
 올벼는 한 말 뜯고 조 팔은 다 묵이니  
 살히피 바랑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자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요역 공부(徭役貢賦)는 어찌하여 차려 낼고  
 백 번을 생각해도 결말날 성이 전혀 없다

[A]

(중략)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수레와 구량(餽糧)\*을 갖추오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추추 분분(啾啾憤憤)\*하여 원망하고 노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 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갖 가지로 위협하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인위(人威)로 피하며 잔피로 여월더냐  
 하늘 생긴 이 내 궁(窮)을 원망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이니 설위 무엇하리

[B]

- 정훈, 「탄궁가」 -

- \* 삼순 구식(三旬九食): 한 달에 아홉 번 밥을 먹을 만큼 몹시 가난함.
- \* 원헌(原憲): 공자의 제자로 가난을 편안하게 여겼음.
- \* 상청(上淸): 멸건 윗물.
- \* 살히피 바랑이: 잡초의 이름들.
- \* 환자 장리: 봄에 꾸어다 먹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갚는 곡식.
- \* 구량(餽糧): 먼 길을 갈 때 먹는 마른반찬과 양식.
- \* 추추 분분(啾啾憤憤): 몹시 슬피하고 분해하는 모양.

(나)

논 밭 갈아 김 매고 베잠방이 대님 쳐 신들매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루매고 무림 산중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싹을 베거나 자르거나 지계에 짚어 지팡이 바쳐  
 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부시고 곰방대를 툭툭 떨어

앞담배 피워 물고 ㉠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같고 하더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

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수야, 네 황후\* 그 무엇이라 외치느냐, 사자.

㉡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진행 후행\* 소아리 팔죽 대아리 이죽 청장\* 아스스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수야, 하 거복이\* 외지 말고 계것이라 하려무나.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 황후: 상품
- \* 외골내육: 뼈는 바깥에 있고 살은 안에 있음. 계의 모양을 일컫음.
- \* 상천: 하늘을 향함. 계의 눈이 위로 솟아 있는 것을 뜻함.
- \* 진행 후행: 앞으로 걷고 뒤로 걸음.
- \* 청장: 맑은 간장.
- \* 거복이: 어렵게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내적 고뇌를, (다)는 대화의 방식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대구의 방식을 통해 공간의 확장을,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묘사를 통해 관념적 대상이 지닌 역동성과 생명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모두 구체적인 사물의 나열을 통해 화자가 처한 결핍의 상황을 과장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여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2.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동을 독려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B]는 재물을 통해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기대를 나타낸다.
- ② [A]는 화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악화되는 궁핍함을, [B]는 타개하려던 시도가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드러낸다.
- ③ [A]는 종들의 무례함을 통해 무너진 기강을 성찰하는 모습을, [B]는 대상과 타협하여 빈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 ④ [A]는 가난으로 인해 상실된 양반의 권위를, [B]는 대상의 위협에 굴복하여 기존의 삶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부각한다.
- ⑤ [A]는 준비 소홀을 탓하는 화자의 자책을, [B]는 인위적 노력의 무용함을 깨닫고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3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고된 노동의 틈에 느끼는 화자의 심리적 여유를, ㉡은 지배층의 권위적 언어를 모방한 장수의 상업적 허세를 보여 준다.
- ② ㉠은 육체노동에 활력을 부여하는 자발적 행위이고, ㉡은 대상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여 구매를 유도하려는 장수의 표현이다.
- ③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은 사물의 속성을 길게 나열하여 시선을 끌려는 장수의 의도를 드러낸다.
- ④ ㉠은 화자가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을 표출한 것이고, ㉡은 장수가 대상의 외양을 과장되게 묘사한 것이다.
- ⑤ ㉠은 화자의 행위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정서의 발현이고, ㉡은 화자로부터 비판과 교정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발화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동요 속에서 사대부와 평민은 현실을 대하는 상이한 방식을 보여 준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대부는 궁핍을 타개할 생존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난을 숙명으로 수용하며 현실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평민들은 생업의 현장에서 주체적 노동을 통해 활력을 얻거나, 양반의 권위적 언어를 상업적으로 모방하는 행위를 꼬집으며 당대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실용적 의식을 드러낸다.

- ① (가)에서 궁귀를 내쫓으려다 자신의 분으로 수용하는 것은, 궁핍을 타개할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도한 관념적 자기 합리화 이겠군.
- ② (나)에서 기음 매고 싶을 벤 후 점심을 먹고 하산하는 것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일상의 여유와 충족감을 잃지 않는 삶의 방식이겠군.
- ③ (다)에서 장수가 계장의 외양을 한자어로 묘사하는 것은, 지배층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려는 것이겠군.
- ④ (가)에서 세금을 걱정하며 막막해하는 화자의 모습과 달리, (나)에서 노래를 부르는 평민의 모습은 생업 현장의 건강한 활력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종들이 주인의 처지를 비웃는 행위와 (다)에서 실용적 명칭을 요구하는 손님의 편찬은, 신분적 위계와 권위적 태도가 도전받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출수형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을 켜며) 여러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 저 별들 사이에 총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흥기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지구 궤도를 뒤덮고 있는 시한폭탄, '우주 쓰레기'와 '케슬러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로켓의 파편, 페인트 조각 등을 말합니다. 현재 추적 가능한 10cm 이상의 쓰레기만 해도 약 3만 개가 넘습니다. (㉠ 자료 제시) 이 그래프를 보시죠. x축은 연도, y축은 궤도상 물체의 개수입니다. 2007년과 2009년 부근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히 치솟는 구간이 보이시죠?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바로 인공적인 충돌 실험과 위성 간의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충돌이 수천 개의 파편을 만들어내며 그래프를 수직 상승시킨 것이죠.

문제는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며 더 작은 파편을 무한히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쇄 충돌 현상을 '케슬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 자료 제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시면, 파편 하나가 위성을 치고, 그 파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다른 위성들을 덮치는 모습이 마치 전염병이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특정 궤도는 파편으로 꽉 차서 인류가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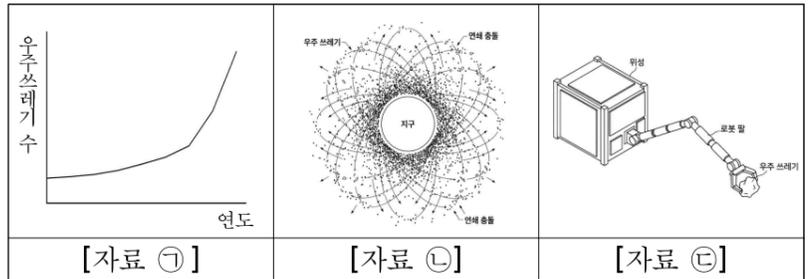
해결책은 없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에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청소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물로 포획하거나, 작살을 쏘거나, 자석을 이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술이 연구 중입니다. (㉢ 자료 제시) 이 사진은 그중 '로봇 팔'을 이용해 회전하는 파편을 잡는 수거 위성의 개념도입니다. 하지만 파편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궤도가 불규칙하여 기술적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거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주 개발은 인류의 꿈이지만, 그 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주 환경 보호'라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별들이 흥기가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이제는 우주를 '청소'해야 할 때입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대상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전문가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발표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며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 ④ 상반된 관점을 지닌 두 이론을 비교하여 청중에게 비판적 판단을 맡기고 있다.
- ⑤ 청중의 질문을 유도하고 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특정 시점에 발생한 인위적 사건들이 우주 쓰레기의 총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음을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한다.
- ② ㉠을 활용하여, 파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지구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궤도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③ ㉡을 활용하여, 하나의 충돌이 기하급수적인 파편 생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케슬러 증후군'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 ④ ㉡을 활용하여, 우주 쓰레기 문제가 방치될 경우 인류가 우주 궤도를 영영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 ⑤ ㉢을 활용하여, 현재 연구 중인 구체적인 해결 기술을 소개하되,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우주 쓰레기가 총알보다 빠르다니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케슬러 증후군이 심해지면 내가 매일 쓰는 지도 앱이나 인터넷 통신도 마비될 수 있다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

**학생 2:** 청소 위성의 로봇 팔 기술은 흥미롭지만,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액수가 없어서 좀 아쉬워. 실제 예산 규모나 상용화 예상 시점 같은 정보를 더 찾아봐야겠어.

**학생 3:** 기술로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위성을 쏘아 올릴 때 폐기 계획까지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가 불충분함을 언급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소개된 기술적 해결 방안의 원리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을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결 지어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38~42] (가)는 강연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들은 학생들의 대화이며, (다)는 (가)와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교지 기사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연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뇌과학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핵심은 '도파민'과 '가변적 보상'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보상이 예측 가능할 때보다, 언제, 얼마나 큰 보상이 주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를 '가변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SNS의 '새로 고침' 기능을 생각해 보세요. 화면을 당길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게시물이 나올지, 누가 '좋아요'를 눌렀을지 알 수 없죠?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 뇌를 자극하여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주목 경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디지털 디톡스'와,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학생 1:** 오늘 강연 진짜 흥미롭지 않았나? 내가 왜 시험 기간에도 숏폼 영상을 끊지 못하는지 이제 알겠어. 다음 영상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기대감이 바로 '가변적 보상'이었던 거야.

**학생 2:** 맞아.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좀 무섭기도 해. 우리 학교 학생들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잖아. 이번 교지에 이 내용을 다루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어때?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강연에서 말한 '디지털 디톡스'는 좀 뻔하지 않아? 그냥 "폰을 쓰지 마라"는 건 실천하기 어렵잖아.

**학생 1:** 그렇긴 해. 그럼 강연 내용을 우리 학교 상황에 맞게 좀 변형해 보자. ① 도파민 분비 원리를 공부에 적용해 보는 건 어때? 공부나 독서 같은 활동에도 '가변적 보상' 요소를 넣는 거야.

**학생 2:** 오, 그거 신선한데? 예를 들어 '랜덤 보상 스터디' 같은 거? 공부 시간을 채우면 제비뽑기로 빵이나 대박 간식을 주는 거지. 그럼 애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학생 3:** 음, 잠깐만. 방금 내가 제안한 방식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 강연자님이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스스로 만들라"고 강조하셨잖아. 불확실한 보상은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중독을 유발하니까, 오히려 확실한 성취감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학생 1:** 어... 그런가? 내가 강연 내용을 반대로 적용할 뻔했네. 네 말이 맞아. 도파민을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유도하려면,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확실하게 보상해 주는 '자기 주도적 루틴'을 강조해야겠다.

**학생 2:** 그래. 그리고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점심시간에 '스마트폰 프리 존'을 운영해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이자.

**학생 3:** 참, 그리고 기사를 쓸 때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극적인 말 대신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쓰면 좋겠어.

**학생 1:** 알았어. 반영해서 써 볼게.

(다)

기사 초고 제목: 당신의 뇌는 지금 '해킹'당하고 있다 -

[A]

수업 시간, 진동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도파민'의 노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최근 초청 강연에서 뇌과학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가변적 보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측할 수 없는 알림과 콘텐츠가 뇌의 보상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중독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주목 경제'의 논리에 따라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 정교한 덫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우리의 뇌를 해킹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중독의 고리를 끊고 주체적인 삶을 되찾기 위한 두 가지 처방전을 제안한다.

첫째, '예측 가능한 보상'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뇌과학 이론에 따르면, 불확실한 보상은 중독을 부르지만 확실한 보상은 건강한 성취감을 준다. 예를 들어 학습 플래너를 쓰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좋아하는 간식을 주거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식이다. 이는 도파민을 긍정적인 동기 부여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둘째, 학교 안에 '디지털 디톡스 존'을 조성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기업들의 고도화된 설계를 이겨내기 힘들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없이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산책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잠시 화면을 끄고, 진짜 세상에 '접속'해 보자.

38. (가)와 (나)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화제에 대한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나)는 (가)에서 제시된 개념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있다.
- ② (가)는 권위 있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는 (가)의 정보가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가)에서 언급된 비유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 ④ (가)는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나)는 (가)의 분석 결과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며 다른 관점에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청중의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는 (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39. (가)를 고려할 때, ㉠과 관련하여 (나)의 대화 흐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1은 ㉠은 제안했으나, 학생 2의 반대와 학생 3의 대안 제시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였다.
- ② 학생 1은 ㉠을 통해 강연자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으나, 학생 3의 설득으로 강연 내용을 수용하게 되었다.
- ③ 학생 1이 ㉠을 제안하자 학생 2는 이에 동조하였으나, 학생 3은 강연 내용을 근거로 ㉠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④ 학생 1은 ㉠이 강연의 핵심 논지와 상충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 2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 ⑤ 학생 1은 ㉠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3의 오개념을 바로 잡아 주며, 강연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40. (가)와 (나)의 정보가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설명한 '가변적 보상'과 '주목 경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② (나)에서 학생 3이 제기한 '불확실한 보상의 위험성'을 수용하여, (다)에서는 '예측 가능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나)에서 논의된 '랜덤 보상 스테디'의 사례는 (다)에서 도파민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제시되었다.
- ④ (나)에서 학생 2가 제안한 '물리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은 (다)에서 '디지털 디톡스 존' 조성 제안으로 구체화되었다.
- ⑤ (가)에서 언급된 '디지털 디톡스'의 개념은 (나)에서의 논의를 거쳐 (다)의 두 번째 해결 방안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41. (다)의 표제와 부제 구성을 고려하여 [A]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파민 중독의 원인 분석과 사회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 ② 주목 경제의 실체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묻다
- ③ 가변적 보상의 늪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회복하자
- ④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천 방안
- ⑤ 뇌과학으로 본 스마트폰 중독과 학습 효율의 상관관계

42. (나)를 바탕으로 (다)를 점검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생 3이 제안한 '표현 순화'가 제목과 본문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해킹'을 '영향'으로, '노예'를 '의존적 사용자'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 ② 학생 2가 제안한 '스마트폰 프리 존'의 운영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 ③ 학생 1이 언급한 '자기 주도적 루틴'의 강조가 누락되었으므로, 첫째 해결 방안의 구체적인 실천 예시로 보강해야 한다.
- ④ 학생 3이 우려한 '불확실한 보상의 위험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으므로, 도파민 분비 원리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 ⑤ 학생 2가 제안한 '학교 차원의 환경 조성'이 개인적 차원의 노력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므로, 두 번째 해결 방안의 분량을 늘려야 한다.

[43~45] 다음은 학생의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주제: 노키즈존 확산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모색  
 목적: 교내 토론 대회를 앞두고, 학급 게시판에 친구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글을 씀.  
 예상 독자: 노키즈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같은 반 친구들

[초고]

최근 카페나 식당 입구에 '노키즈존'이라고 적힌 팻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업주들은 영업의 자유와 다른 손님들의 배려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의 ㉠ 관용과 배려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징후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워 불편을 겪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에 실수를 통해 사회적 예절을 배워나가야 한다. 노키즈존은 아이들에게서 '배울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몇몇 아이들의 일탈을 이유로 모든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이다.

또한, 노키즈존은 육아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만 전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진 부모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을은 커녕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높은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결책은 '금지'가 아니라 '케어'에 있다. 최근 일부 매장에서는 '노키즈존' 대신 '케어 키즈 존'을 도입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매장 측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서로가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고 배려할 때, 협오와 배제가 아닌 공존의 공간이 열릴 것이다.

43.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담을 인용하여 주장이 지닌 당위성을 뒷받침해야겠어.
- ② 유추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식의 부당함을 비유적으로 부각해야겠어.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야겠어.
- ④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한 뒤, 이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해야겠어.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의 실효성을 입증해야겠어.

44. <보기>는 초고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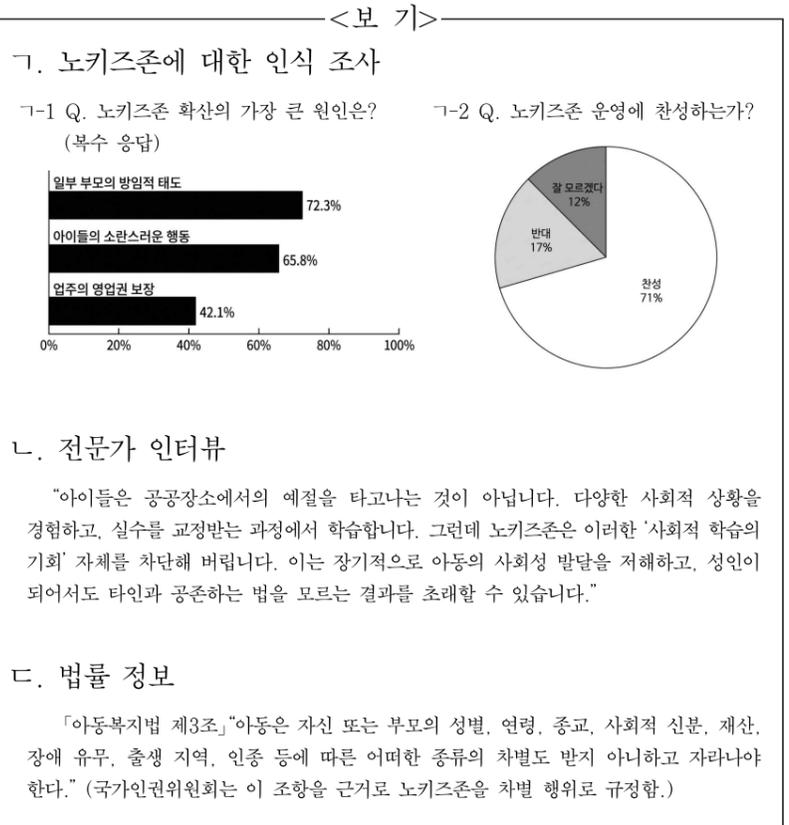
학생 A: 관용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영업 방해로 인한 업주의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학생 B: 일부 매장의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건 아닐까? 실제로 케어 키즈 존이 잘 운영되고 있을까?

학생 C: 아이들의 배울 권리만큼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휴식하고 싶은 다른 손님들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을까?

- ① ㉠과 관련하여, 학생 A는 관용과 배려의 가치에 공감하면서도, 노키즈존을 둘러싼 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누가 책임질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과 관련하여, 학생 C는 노키즈존의 확산이 관용의 상실이 아니라, 아동과 성인의 공간을 분리하려는 합리적 선택임을 주장하고 있다.
- ③ ㉣과 관련하여, 학생 C는 소수의 문제 행동을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 ④ ㉡과 관련하여, 학생 A는 아이들의 사회화 교육을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 ⑤ ㉢과 관련하여, 학생 B는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상호 배려만으로는 현실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을 활용하여, 노키즈존의 주된 원인으로 '부모의 방임적 태도'가 지목된 점을 근거로, 4문단에서 제안한 '케어 키즈 존'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2를 활용하여, 노키즈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글쓴이의 주장이 대중적 인식과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설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도입부로 활용한다.
- ③ ㉡을 활용하여, 노키즈존이 단순히 현재의 차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성 결여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2문단에 보강한다.
- ④ ㉢을 활용하여, 노키즈존 운영은 아동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단순한 영업 방침 이상의 인권 문제임을 3문단에 추가한다.
- ⑤ ㉠-2와 ㉡을 종합하여, 노키즈존 찬성 여론이 높은 현실과 아동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4문단의 대안으로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의 높임 선어말 어미는 앞뒤 형태소의 음운 환경이나 문장의 통사적 조건에 따라 그 형태가 규칙적으로 교체되었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결합하는 어간 끝소리에 따라 세 계열로 교체되었는데, 다음 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간 끝소리	문헌 용례
ㄱ, ㄷ, ㅅ, ㅎ	옷 입스바 - 『월인석보』
ㄷ, ㅅ, ㅈ	法(법) 듣좁고 - 『석보상절』
모음, ㄴ, ㄹ, ㄷ, ㅌ	世尊(세존)을 보습고 - 『석보상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첫소리는 어간 끝소리가 ‘ㄱ, ㄷ, ㅅ, ㅎ’일 때 ‘ㅅ’, ‘ㄷ, ㅅ, ㅈ’일 때 ‘ㅈ’, 울림소리일 때 반치음 ‘ㅌ’으로 실현되었다. 가운데소리인 모음은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양성이면 ‘·’, 음성이면 ‘-’가 선택되었다. 또한 이 선어말 어미들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끝소리 ‘ㅂ’이 유지되었으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ㅂ’이 순경음 비음 ‘ㅍ’으로 약화되어 교체되었다. 표의 ‘입스바’는 어간 ‘입-’에 ‘-습-’과 모음 어미 ‘-아’가 결합하면서 ‘ㅂ’이 ‘ㅍ’으로 교체된 결과이다.

주어인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뒤따르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시-’,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샤-’로 교체되었다. 이때 ‘-샤-’ 뒤에 오는 어미의 첫 모음 ‘아/어/오’는 표기상 탈락하였다. 단,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바로 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두 형태소 사이에 모음 ‘·’나 ‘-’가 의무적으로 개입하였다. 개입하는 모음 역시 모음 조화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 모음이 개입함에 따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끝소리 ‘ㅂ’은 모음을 만난 환경이 되어 ‘ㅍ’으로 교체되었다. 예컨대 ‘보-(見)’ 뒤에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이 차례로 결합하면 모음이 개입하여 ‘보스샤시-’로 실현되었다.

상대 높임을 나타낼 때는 종결 어미 앞에 평서형 선어말 어미 ‘-이-’나 의문형 선어말 어미 ‘-잇-’을 결합했다. ‘-잇-’ 뒤에는 의문형 종결 어미 ‘-가’ 또는 ‘-고’가 결합했는데, 문장에 의문사가 없을 때는 ‘-가’ 계열이, 의문사가 있을 때는 ‘-고’ 계열이 선택되었다. 한 용언에 세 가지 높임 선어말 어미가 모두 쓰일 때에는 ‘객체-주체-상대’의 순서로 배열되었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가운데소리는 선행하는 어간 끝음절 모음과 모음 조화를 이루며 결정되었다.
- ②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뒤따르는 어미의 첫 모음을 표기상 탈락시켰다.
- ③ 의문형 선어말 어미 뒤에 결합하는 종결 어미는 의문사의 유무라는 문장의 통사적 조건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선택되었다.
- ④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끝소리가 ㅍ으로 약화되는 현상은 앞선 어간 끝음절 모음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었다.
- ⑤ 한 용언에 세 가지 높임 선어말 어미가 모두 쓰일 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배열되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자 료> —

- 臣下(신하) | 님그믐 ㉠ (돕-(助)+-아)  
[신하가 임금을 도와]
- 王(왕)이 부텨긔 ㉡ (뫓-(迎)+-아)  
[왕이 부처를 맞이하시어]
- 부테 命(명) ㉢ (ㅎ-(爲)+-아)  
[부처가 명(命) 하시어]
- 菩薩(보살)이 世尊(세존)스긔 ㉣ (니르-(謂)+-고)  
[보살이 세존께 말씀하시고]
- 이 님 ㉤ (오-(來)+상대 높임 의문)  
[이는 누가 오십니까]

- ① ㉠은 어간 끝소리가 ‘ㅂ’이라 ‘-습-’이 선택되고, 뒤따르는 모음 어미의 영향으로 ‘ㅂ’이 약화된 ‘뫓스바’이겠군.
- ② ㉡은 어간 끝소리가 ‘ㅈ’이라 ‘-좁-’이 선택되고, 모음이 개입함과 동시에 주체 높임이 ‘-샤-’로 교체된 ‘뫓즈샤’이겠군.
- ③ ㉢은 주체 높임 어미 뒤에 모음 어미가 와서 ‘-샤-’로 교체된 후, 뒤따르던 어미의 첫 모음이 탈락한 ‘ㅎ샤’이겠군.
- ④ ㉣은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 ‘-습-’이 선택되고, 뒤에 결합하는 주체 높임 어미 ‘-시-’ 앞이 자음 환경이므로 ‘ㅂ’이 유지된 ‘니르습시고’가 되겠군.
- ⑤ ㉤은 문장 안에 의문사가 존재하므로,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는 종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오잇고’로 실현되었겠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습 활동> —

복합적인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는 어떤 종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다음 자료의 발음 과정을 분석해 보자.

[자료]

- ㉠ 꽃잎차 [꼰닙차]   ㉡ 물약병 [물락뽕]   ㉢ 흙일꾼 [흥닐꾼]
- ㉣ 값진일 [갑찐닐]   ㉤ 걸핍기 [거탈끼]   ㉥ 닭뻗만 [닥뻗만]

- ① ㉠과 ㉡는 모두 음운의 첨가가 일어났고, 그 종류는 서로 같다.
- ② ㉡와 ㉢는 모두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그 종류는 서로 다르다.
- ③ ㉢와 ㉣는 모두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고, 그 종류는 서로 같다.
- ④ ㉣와 ㉤는 모두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그 종류는 서로 같다.
- ⑤ ㉤와 ㉥는 모두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고, 그 종류는 서로 다르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이 안길 때, 안긴문장 내부의 특정 문장 성분이 안은문장의 성분과 중복되거나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 그 성분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안은문장의 종류와 생략된 문장 성분을 분석해 봅시다.

- <자 료>
- ㉠: 비가 오기를 기다리던 농부들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 ㉡: 동생은 내가 예전에 사 준 지갑을 친구에게 선물했다.
  - ㉢: 누나는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식탁에 놓았다.
  - ㉣: 우리는 어릴 적에 자주 놀던 동네로 이사를 갔다.
  - ㉤: 그는 남들이 모르게 그 일을 조용히 처리했다.

- ① ㉠에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생략된 관형사절과,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명사절이 쓰였군.
- ② ㉡의 안긴문장에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부사어로 생략되었고, 수식받는 체언과 동일한 대상이 목적어로 생략되었군.
- ③ ㉢의 관형사절에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동일한 대상이 생략되어 있으며, 이는 안긴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군.
- ④ ㉣의 관형사절에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주어로 생략되었고, 수식받는 체언과 동일한 대상이 부사어로 생략되었군.
- ⑤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로 쓰였으며, 그 내부에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동일한 대상이 생략되었군.

3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도서관에서 나온 지훈이 집에 있는 소연과 통화하는 상황]  
**지훈:** 소연아, ㉠ 지금 출발할 거야?  
**소연:** 응, ㉡ 방금 나갈 준비 다 했어. 내가 ㉢ 어제 학교에서 빌려준 책은 챙겼지?  
**지훈:** 응, ㉣ 아까 가방에 챙겨 놨어. ㉤ 이따가 시민공원에서 만나면 돌려줄게. 너 공원으로는 ㉥ 올 때 자전거 타고 올 거야?  
**소연:** 응, 자전거로 ㉦ 거기까지 갈 거야. 도착하면 시민공원 남문 입구를 마주 보고 ㉧ 오른쪽에 있는 벤치로 와. ㉨ 그때 우리가 만났던 곳 말이야.  
**지훈:** 아, 남문 입구를 등지고 서면 ㉩ 왼쪽에 있는 벤치 맞지? 알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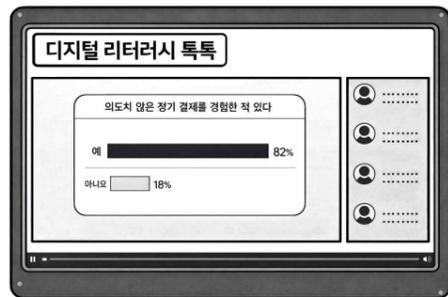
- ①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 ② ㉡과 ㉤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③ ㉥의 이동 도착지와 ㉦이 가리키는 장소는 동일하다.
- ④ ㉧과 ㉨은 기준으로 삼은 방향이 달라 다른 곳을 의미한다.
- ⑤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때를 가리킨다.

[40~43]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학교 누리집에 올린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특특'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심리학자 김 박사님과 함께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용자 환경, '다크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진행한 짧은 설문 결과를 볼까요?



**전문가:** 네, 무려 82%나 이런 경험으로 ㉠ 당황하신 적이 있군요. 이것이 바로 다크 패턴의 첫 번째 유형인 '숨은 갱신'입니다. 무료 체험 종료 후 명확한 고지 없이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수법이죠.

- [A]
- **모래알** 헐, 저번 달 영상 편집 앱 결제된 게 저거였구나. 앱 삭제했는데 또 결제될까요?
  - **조약돌** 모래알 님, 계정 들어가서 구독 해지 안 하면 계속 ㉡ 결제돼요!
  - **파도** 맞아요. 다행히 내년부터는 유료 전환 7일 전에 알림을 보내도록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대요.

**전문가:** 두 번째 유형은 '취소 방해'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가입은 눈에 띄게, 탈퇴는 찾기 어렵게 ㉢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전문가:** 이 밖에도 팝업을 닫을 때 '혜택 포기하기'처럼 부담을 주는 문구를 반복 노출하는 '반복 간섭'도 주의해야 합니다.

- [B]
- **산호** 앗, 쇼핑몰 탈퇴하려는데 '정말 떠나시나요?'라며 우는 이모티콘 뜨는 것도 취소 방해인가요?
  - **소라** 산호 님, 그건 아까 진행자님이 말한 반복 간섭에 가깝지 않을까요?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잖아요.
  - **갈매기** 전 결제할 때 '이 카드로 다음에도 결제'가 아예 체크되어 있어서 당황했어요.

**전문가:** 시청자분들이 예리하시네요. 방금 갈매기 님이 말씀하신 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특정 옵션을 수락하게 만드는 '사전 선택'이라는 또 다른 다크 패턴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 방송의 세부 내용은 하단 타임라인을 클릭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우리 지갑을 노리는 투명한 닷, '다크 패턴'** 작성자: 2학년 3반 박성현  
 디지털 리터러시 특목 영상 클립 링크 첨부파일: [다크패턴\_체크리스트.pdf]

오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그동안 내가 겪었던 억울한 일들이 '다크 패턴'이라는 교묘한 상술 때문임을 알았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인터페이스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숨은 갱신'이다. 영상 클립의 내용처럼, 무료 체험 후 나도 모르게 유료로 넘어가는 수법이다. 내년 법 개정 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무료 체험 만료일을 캘린더에 ㉠ 적어두어야 한다. 둘째, '취소 방해'와 '반복 간섭'이다. 나는 예전에 어떤 앱을 지우려다, 회색으로 숨겨진 탈퇴 버튼을 겨우 찾아 눌렀다. 그런데 곧바로 혜택이 사라진다는 경고창이 세 번이나 연속으로 떠서 포기한 적이 있다. 두 가지 다크 패턴이 결합된 악질적인 사례였다.

결계 전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회원 가입 시 기본으로 체크된 항목이 없는지 ㉡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첨부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똑똑한 디지털 소비자가 되자!

글 제목 (댓글 수)	작성자	작성일
우리 지갑을 노리는 투명한 닷, '다크 패턴'	성현	2026.04.03.
'엔트로피'를 읽고	동민	2026.03.13.
현장 체험 학습 후기	하늘	2026.03.10.

댓글:

- 동민:** 영상 보니까 확 와닿네. 시각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 나도 저런 앱은 바로 삭제해야지.
- 지수:** 체크리스트 유용하네. 방송에서 언급된 '사전 선택' 조심하라는 것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거지?
- 하늘:** 동민아, 아까 방송 보니까 앱 삭제만 해선 안 되고, 설정에 들어가서 직접 구독 해지를 해야 한대!

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는 실시간 대화창으로 시청자 반응을 드러내고, (나)는 댓글 창으로 본문에 대한 반응과 보완 정보가 공유되게 하고 있다.
- (가)는 타임라인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선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고, (나)는 하이퍼링크와 첨부 파일로 정보 확인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가)는 대화창에 제시된 시청자의 경험을 계기로 특정 다크 패턴을 설명하고, (나)는 댓글을 통해 본문의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 (가)는 설문 결과를 시각화하여 수용자의 경험 비율을 보여 주고, (나)는 게시글의 수정 이력을 표시하여 정보가 갱신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가)는 분할된 화면에 시각 자료와 대화창을 나란히 배치하고, (나)는 게시판 목록을 제시하여 다른 게시물의 이동을 돕고 있다.

41. [A], [B]에서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의 '조약돌'은 '모래알'이 취한 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안내하고 있다.
- [A]의 '파도'는 앞선 대화 내용과 관련된 향후의 제도적 변화를 덧붙이며 정보를 확장하고 있다.
- [B]의 '산호'는 전문가가 설명한 개념을 자신이 겪은 상황에 적용하여 이것이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질문하고 있다.
- [B]의 '소리'는 '산호'가 겪은 상황이 앞서 방송에서 언급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B]의 '갈매기'는 자신이 경험한 다크 패턴을 언급하며 그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42. <보기>는 (가)와 (나)를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학생이 수집한 자료와 기획안이다. 이에 대한 학생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집 자료]**

**앗! 정말 떠나시나요?**

해택 포기하기    쿠폰 받고 유지하기

자료 1
자료 2

**[카드 뉴스 기획안]**

- 카드 1: 다크 패턴에 대한 경각심 높이기
  - 카드 2: '숨은 갱신'의 개념과 대처 방안 안내하기
  - 카드 3: '취소 방해'와 '반복 간섭'이 결합된 사례 보여 주기
  - 카드 4: '사전 선택'에 대한 주의 당부하기
  - 카드 5: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실천 방안 강조하기
- 카드 1을 작성할 때, (가)의 방송 화면에 제시된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도 모르게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해야겠군.
  - 카드 2를 작성할 때, (나)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캘린더 기록을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필수적인 대처 방안으로 안내해야겠군.
  - 카드 3을 작성할 때, (나)의 글쓴이가 겪은 상황과 부합하는 자료 1을 시각 자료로 배치해야겠군.
  - 카드 4를 작성할 때, (나)의 댓글에서 '지수'가 언급한 내용을 환기하며, (가)의 대화창에서 언급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2를 예시로 넣어야겠군.
  - 카드 5를 작성할 때, (나)의 댓글에서 '하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앱 삭제에 그치지 않고 계정 설정에서 직접 구독 해지를 해야 함을 당부하며 마무리해야겠군.

4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명사에 피동 접사가 결합된 형태로, 외부 요인에 의해 화자의 감정이 유발되었음을 나타낸다.
- ② ㉡: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는 조사와 결합되어, 결제라는 사태를 유발한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 보조 동사 '-어 두다'가 결합되어, 앞말의 행동이 끝난 후 그 결과의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④ ㉣: 연결 어미 '-어야'가 사용되어, 뒤 절의 사태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 절의 사태가 양보의 조건임을 나타낸다.
- ⑤ ㉤: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되어, 수식받는 체언 '습관'이 관형사절의 의미상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44~45] (가)는 학생회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학생회 누리 소통망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현: 다음 주 환경의 날을 맞아, 학생회 SNS에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올리자. 실천 방안으로는 '스팸 메일 비우기'와 '영상 해상도 낮추기'를 제안하면 어떨까?

수현: 좋은 생각이야. 그런 사소한 행동으로도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된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 그 점을 문제 상황으로 먼저 짚어 주자.

성현: 그럼 경각심을 주게 캠페인 글에 친구들 계정을 태그해서 직접 지목하는 건 어때?

지현: 그건 지목받은 친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신 본문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원하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게시물도 한데 모아 볼 수 있게 하자.

성현: 아, 지현이 말대로 해시태그가 낫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디지털 탄소 배출량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탄소 계산기' 사이트 주소도 공유하면 좋겠어.

수현: 성현아, 누리 소통망 게시물 본문에는 인터넷 주소를 적어도 클릭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이트 주소는 우리 학생회 계정의 프로필 링크에 걸어 두고, 본문에서 거기로 안내하자.

지현: 두 사람 아이디어 모두 완벽해. 마지막 이미지에는 투표 기능을 넣어서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고 마무리하자.

(나)

블로그 | 이 블로그에서 검색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도전에 동참해요!**

공개 유형: 전체 공개 | 게시 일시: 2026.03.25.19:14

당신의 스마트폰이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다?

a  b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실천 가이드!

- 1. 스팸 메일 비우기
- 2. 영상 해상도 낮추기

도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

안녕하세요! 학생회입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막대한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

㉣ 내 디지털 탄소 배출량이 궁금하다면? 학생회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 직접 계산해 보세요!

#디지털탄소다이어트 #OOO 환경챌린지 ㉤ ♥ 공감 56 💬 댓글 5

44.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목에 청유형 표현과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수용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본문 텍스트의 흐름 속에 해시태그를 삽입하여, 수용자가 글을 읽는 도중에 관련 게시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투표란의 선택지를 상반된 입장으로 구성하여, 화제에 대한 수용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 ④ 본문 텍스트 자체에 외부 사이트 연결 하이퍼링크를 부여하여, 탄소 배출량 확인을 위한 접속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 ⑤ 문제 상황을 환기하는 시각 자료에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45.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현'이 언급한 탄소 배출의 원인을 수용자가 환기할 수 있도록, ㉠에 의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 ② '수현'이 지적한 문제 상황과 '지현'이 제안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용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에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 ③ '지현'의 제안을 반영하여, ㉢에 캠페인 동참 여부를 묻는 투표 기능을 배치하여 수용자가 게시물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도록 구성했다.
- ④ '성현'과 '수현'의 논의를 반영하여, 수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탄소 배출량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를 통해 수용자 간에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외부 사이트 접속 경로를 안내했다.
- ⑤ '성현'의 제안에 대한 '지현'의 우려를 반영하여, 본문 텍스트에는 특정 인물을 호출하는 방식 대신 ㉤를 삽입하여 캠페인의 확산을 도모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